

박준표·김선빈·터커 ‘별은 내 가슴에’



KBO 올스타 베스트 12 선정...KIA 브룩스 아쉽게 탈락
27일까지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가슴에 패치 달고 경기
선수 성적으로 승리 팀 결정...기자단, 미스터 올스타 선정

‘올스타 패치’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비게 될 KBO ‘별들의 밤’이 확정됐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박준표(중간투수)와 함께 김선빈(2루수), 터커(외야수)가 올스타의 영광을 안았다.
 2020 KBO 신한은행 SOL 올스타 ‘베스트 12’ 선정 팬투표가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총 137만 1993표로 최종 마감됐다. 8월 10일부터 26일간 진행된 투표표 통해 ‘베스트 12’가 선정됐다.
 드림 올스타 유격수 후보인 롯데 마차도가 가장 많은 84만9441표를 획득하며 ‘최고의 별’이 됐다. 마차도는 2008년 롯데 가르시아(67만8557표)에 이어 역대 외국인선수 두 번째 팬 투표 최다 득표 선수의 영예도 안았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키움 이정후가 83만1755표로 최다득표를 기록하며 전체 2위에 올랐다.
 KIA에서는 투수 박준표(72만2464표)와 외야수 터커(68만2457표)가 처음 올스타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 유격수로 베스트12에 선정됐던 김선빈은 이번에는 2루수(68만8226표)로 올스타가 됐다.

다.
 NC 구장모의 벽을 넘지 못한 ‘에이스’ 브룩스는 개인 SNS를 통해서 “괜찮다.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투표를 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드림 올스타 포수 부문 1위를 차지한 강민호는 이번 선정으로 개인통산 10번째(2007~2013, 2015, 2019~2020) 베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24명의 선수 중 최다 베스트 기록이다.
 나눔 외야수 부문의 LG 김현수는 해외에 진출했던 2016~2017년을 제외하고 6회(2013~2015, 2018~2020) 연속 베스트가 되면서 최다 연속 선정 주인공이 됐다.
 구단별로는 롯데가 가장 많은 5명의 올스타를 배출했다. 이어 NC서 4명이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고, KIA와 키움이 각 3명이다. LG·두산·KT·삼성에서는 2명이 베스트가 됐고, SK에서는 1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올스타 선수들은 트로피와 상금을 받는다. 드림과 나눔 각 팀의 최다 득표 1위 선수에게는 상금 100만원, 22명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주

어진다. 이들은 특별 제작 패치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비게 된다.
 올스타 투표의 분위기는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베스트 12’ 선수들이 바통을 받아 분위기를 띄운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8일부터 27일까지 역대 최초 ‘KBO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가 펼쳐진다.
 3주간 각 팀의 경기를 통해 나눔 올스타(KIA, 키움, LG, NC, 한화)와 드림 올스타(두산, SK, KT, 삼성, 롯데)가 우승을 다투게 된다.
 레이스 기간 올스타 선수들의 경기 출전 성적 중 1일 WPA(Win Probability Added·승리확률 기여도) 평균을 가지고 승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매일 드림·나눔 팀별로 올스타 선수들의 WPA를 집계해 평균점이 높은 팀이 1점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점수를 거둔 팀이 언택트 올스타 레이스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레이스 종료 후에는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기자단 투표를 통해 ‘미스터 올스타’도 선정한다. 미스터 올스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 70만 원 상당의 골드바가 수여 된다.
 2020 KBO 올스타 인터파크 홈런레이스도 전개 된다. 레이스 기간 선수 개인이 친 홈런 점수를 집계해 가장 높은 점수를 쌓은 선수가 7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가져간다. /김여울 기자 wool@



박준표

김선빈

터커

‘상승세’ KIA “강적들 올테면 오라지”

T 타이거즈 전만대

LG·두산·NC과 6연전
 선발진 안정감·타격도 몰올라
 박준표, 이번주 실전 피칭

‘1회’에 KIA 타이거즈의 승패가 갈린다.
 KIA는 새로운 한 주 ‘강적’들과 승부를 이어나간다. 홈에서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를 상대한 뒤 12일에는 NC 다이노스의 안방으로 건너가 2연전을 갖는다.

모두 상위권에 위치한 팀들이다.
 LG는 7일 현재 7연승을 달리며 1경기 차 밖에서 1위 NC 자리를 넘보고 있고, 두산은 6연승을 달린 KT 위즈와 공동 4위. NC는 3연패로 한 주를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1위다.
 상대전적에서도 KIA가 밀린다. LG와 두산에 모두 3승 8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NC에도 4승 5패로 뒤져있다.
 어려운 일정을 앞두고 KIA에는 반가운 상승세가 있다. 허리 통증으로 한 턴 쉬었던 브룩스가 안방투로 돌아와서 지난주 두 경기를 15이닝 1실점으로 책임져왔다.
 양현종(6이닝 2실점), 가능(7이닝 2실점), 이민

우(6.2이닝 3실점)는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임기영이 5.2이닝 5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지만 선발진이 모두 40.1이닝을 책임져왔다.
 불안하던 선발진이 안정을 찾았고 타선의 힘도 좋아졌다.
 부상으로 빠졌던 김선빈이 돌아와 특급 대타로 대기하고 있고, ‘이적생’ 김태진도 재활을 끝내고 내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원준도 톱타자로 만점 활약을 해주고 있다. 최원준은 지난주 5경기에서 21타수 9안타, 0.426의 타율을 기록했다. 중요한 순간 타격으로 주말 한화와의 경기에서 연달아 결승타도 장식했다.
 3번 타자 최형우의 방망이도 뜨겁다. 최근 5경기

■KBO중간순위 (7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97	57	3	37	0
2	LG	101	58	3	40	1
3	키움	105	61	0	44	1.5
4	두산	101	55	3	43	4
4	KT	99	55	1	43	4
6	KIA	99	53	0	46	6.5
7	롯데	96	48	1	47	9.5
8	삼성	99	46	1	52	13
9	SK	102	32	1	69	28.5
10	한화	99	27	1	71	32

특독히 해졌다.
 1번과 3번의 활약 속에 KIA는 최근 5경기에서 모두 1회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상위권과의 승부가 이어진다. KIA의 뒷문 고민도 여전히 있다. 전상현이 지난주 세 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는 챙겼지만 승리까지 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기다리고 있는 박준표의 복귀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 박준표는 이번 주 실전을 소화한 뒤 다음 주 복귀 예정이다.
 뒷심에서 밀리는 만큼 안정된 선발진과 상위 타순의 상승세를 앞세워 1회부터 집중력 있는 공격으로 확실하게 점수를 챙겨야 한다.
 KIA가 초반 싸움으로 강적들을 상대로 5강 탈환을 이뤄내길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뒷심에 운 광주·전남



지난 6일 울산현대와의 1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선제골을 장식한 광주FC의 윌리안(오른쪽)이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K리그1’ 광주, 울산전 1-1...리그 1위와 빚속 혈투 선취골 못지켜
 ‘K리그2’ 전남, 수원전 2-2...종료 직전 통탄의 동점골 내줘

원정길에 나선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가 웃다가 울었다.
 광주는 지난 6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2020 K리그1 19라운드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수원FC의 안방으로 간 전남도 K리그2 18라운드 경기에서 눈앞에서 승리를 놓쳤다.
 K리그1 1위, K리그2 2위 ‘강적’과의 승부에서 모두 선제골을 지키지 못한 아쉬운 무승부였다.
 광주는 윌리안이 팀을 들었다 놓았다. 윌리안은 전반 22분 엄원상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로 ‘선두’ 울산을 상대로 선제골을 만들었다.

하지만 후반 아쉬운 장면이 이어졌다.
 울산의 ‘골문원’ 주니오가 후반 13분 몸을 날리며 머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후반 25분 윌리안에게 다시 시선이 쏠렸다. 공을 다루던 윌리안이 울산 김태환의 허벅지를 걸어서면서 비디오 판독 끝에 퇴장을 당했다.
 골키퍼 윤병국이 막판 울산의 공세를 막으며 광주에 귀한 승점 1점을 안겨줬다.
 앞선 4라운드 울산전에서도 선제골 뒤 자책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던 광주에는 ‘대어’를 잡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 광주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승점을 더한 것에 위안을 삼았다.

전남의 무승부는 더 아쉬웠다.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극장골’을 허용했다.
 수원종합운동장에서 ‘2위’ 수원과 만난 전남은 경기 시작 9분 만에 나온 황기욱의 헤더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그러나 전남 36분 수원 말로니의 골로 1-1. 수원이 거센 공세를 펼쳤지만 분위기는 전남에 기울었다. 후반 31분 수원의 조유민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고, 후반 38분에는 황기욱의 두 번째 골까지 나왔다.
 2-1로 앞선 상황에서 주어진 6분의 추가 시간, 전남이 5분은 잘 버텼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마지막 코너킥 상황에서 수원 장준영에게 헤더골을 허용했고 2-2로 경기가 종료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코비치, 화를 부른 화풀이



노바크 조코비치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남자단식 4회전에서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스페인)에게 포인트를 내준 뒤 자신이 흥분해서 친 공을 맞고 쓰러진 선심에게 다가간 상태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US오픈 16강 1세트, 경기 안풀리자 쳐낸 공이 선심 목에 맞아 실격패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훗잡’에 저지른 실수 하나로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340만 2000달러)에서 실격패했다.
 톱시드 조코비치는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이레전 남자 단식 4회전(16강)에서 20번 시드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27위·스페인)와 맞붙었다.
 그간 부스타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기록 중이던 조코비치는 잇따른 실수에 1세트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조코비치는 순간 흥분했는지 베이스라인 뒤로 공을 쳐 보냈는데, 이게 선심의 목에 정통으로 맞고 말

았다. 경기는 중단됐고, 심판은 조코비치의 실격패를 선언했다.
 조코비치가 한동안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코비치가 의도적으로 선심을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테니스에서 훗잡에 친 공으로 심판 등 코트 내 경기 진행 요원을 맞추는 행위는 실격 대상이다.
 조코비치는 대회에서 탈락한 것은 물론, 그간 승리로 받은 상금을 벌금으로 반납해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 따낸 랭킹포인트도 모두 무효 처리된다.
 이로써 조코비치의 메이저 대회 우승 도전과 연승 행진이 모두 멈췄다. /연합뉴스